

현장과 시각

남은 1년이 더 중요하다



최재호  
체육부 차장

김정환 전남대학교육감이 최근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1년 임기동안 취임 화두로 삼았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1년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쳐 7년의 재임기간 중 ‘실력 전남’의 토대와 ‘글로벌 인재육성’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90년에 비해 50% 이상 학생수가 감소하고 400여개에 가까운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의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64%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올린 점이 전남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열마지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김 교육감은 농도 전남의 특성을 살린 시책으로 교육의 활로를 찾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단위 학력진단고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를 측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기본 학력 책임제 등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추진,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때 일부 교사들의 반대를 김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설득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원어민을 자체 초빙한 ‘전남의 국어교육프로그램’은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체험센터’는 도내 21곳에 설치돼 원어민·전담교사와 함께하는 외국어 학습의 효과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수년전만 해도 학생 채우기에 급급했던 전문계 고교도 올해 모두 정원을 넘겼다. 일부 특성화 고교는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서는 등 직업교육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항상 임버터처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 교육감은 지난 2005년부터 “좋은 책 6권 읽기 운동”을 펼쳐 전남교육의 독자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그 효과와 시스템은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내년 광주 매곡동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군 삼양면시대를 열어야 하며 6학급의 소규모 학교(44%)와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는 학생수 등은 전남교육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부모,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않은 대학 통폐합, 우수교사 확보,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확충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김 교육감이 남은 1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때 지금까지의 공이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 lion@kwangju.co.kr

美 구제금융 이번주 본격 투입

1,250억 달러 시티그룹 등 9곳 우선 지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이 이번주 본격 투입된다. 데이비드 네이슨 미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보는 구제금융 중 1천250억달러가 “이번주 초(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9개 대형 은행들이다. 미 정부는 이와 별도로 12개 이상의 지방은행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은행 정상화를 위해 올 연말 전까지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중 2천500억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또 부실 모기지 대출과 같은 은행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데 약 1천억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미 정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도 줄을 잇고 있다. 보철 및 자동차 업계, 헤지 펀드, 외국계 은행 등도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사정은 절박하다. 자동차 업계는 미 대선 주자들은 물론 재선에 도전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미 재무부와 백악관 관리들은 27일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데이비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재무부와 에너지부, 상무부의 “최고 위급” 관리들이 자동차 업계의 지원 요청을 들었다고 말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의회가 지난달 승인한 2천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자동차 업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압록강 철교 찾은 김대중 前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28일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압록강 철교를 방문. 위화도쪽을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FT “IMF 곧 자금 고갈”

세계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본격행보에 나선 국제통화기금(IMF)이 곧 ‘총탄’부족에 시달릴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지난주 아이슬란드에 20억달러, 우크라이나에 16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기로 한 데 이어 헝가리에 1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세계 금융시장의 규모가 IMF의 자금보유고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한 탓에 IMF 단축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 IMF는 현재 2천억달러 규모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500억달러를 신속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金 국정원장 “김정일 업무처리 지장 없어”

지난 8월 뇌 수술 후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신체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했다. 김 원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났고 이후 의사가 평양으로 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

련, “김정남의 프랑스 방문은 사실이라고 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배려 살포와 관련, 그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며 통일부도 자체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한 뒤 “빠르다(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없으나(빠라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북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진 데 사과한다”며 “제발을 방지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대선 D-7

10% 부동산 잡아라

막판 변수 부각...오바마·매케인 흡수 총력전

부동층이 11·4 미 대선의 막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28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아직도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10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간의 지지를 격차 5%포인트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은 10% 부동층의 향배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이끈 선거 전략가인 칼 로브는 최근 오하이오 주의 마이애미 대학 연설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잡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매케인 두 후보 모두 대선 레이스 막판 들어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 AARP가 투표의향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이상(67%), 기혼자 및 여

성(67%), 고학력자(67%),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35%)일 수록 투표 후보를 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껌업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제프 존스는 “올해의 경우 사람들은 두 후보 모두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선택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권자 성향에 따라 양당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했던 2004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 이번 대선의 경우 적어도 지금까지는 침체에 빠진 경제가 최대 이슈이고, 그런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플로리다 린 대학의 로버트 왓슨(대통령학)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나 부동층이 대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실제보다 낮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부동층 유권자들 중에는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정치혐오층과 선거 무관심이 적지 않아 투표 포기로 이어지거나 지지후보가 나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美 당국 “오바마 암살 계획 저지”

미국 정부 당국은 27일 테네시주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를 암살하고 흑인 102명을 살해하려던 무차별 학살 계획을 저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테네시주 잭슨 지방 법원의 법정 기록에 따르면 미 수사당국 관계자는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들 무 알려진 ‘신나치주의’ 스킨헤드족 2명이 총기 판매상을 털어 흑인 고교를 대상으로 연쇄 살인 행각을 벌이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흑인 88명을 총

으로 쏘 죽이고 나머지 14명의 목을 베는 수범의 살인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88과 14는 백인 지상주의자 집단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로 알려져 있다. 또 모의자 두명이 연쇄 살인 행각의 마지막 대상으로 오바마 후보를 겨냥하고 있었으나 “오바마를 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았다 했다”고 수사관계자는 덧붙였다. 모의자 두명의 나이는 각각 18살과 20살로, 한달전 인터넷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영·독·프랑스 정상 30일 금융위기 대처 연쇄 회동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연쇄 회동을 갖는다.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브라운 총리는 오는 30일 런던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의 율리히 빌헬름 대변인은 27일 양국 정상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버진업공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빌헬름 대변인은 “양국 및 유럽의 정치 문제뿐 아니라 금융위기에 대한 추가적인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i-Tail' (히팅테일) by GT Touch Co., Ltd. Features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area, facilities, and price. Includes a phone number: 062)523-1990.